

조선이야말로 진짜 초대국이다

세계 언론들의 평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며 오만하게 높아대는 미국,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이 아메리카제국도 감히 어찌 못하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우리 공화국이 오늘날

미국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력대 미국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지난 수십년간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다. 모든 국제문제들에 간참하면서 세계의 (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결론)하고 (결정)을 내리곤 하는 미국에 오래동안 풀지 못한 정치적수수께끼가 있다는것자체가 수수께끼이다. 그 수수께끼가 다름아닌 조미사이의 모순이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 어느 미국대통령이나 (조선문제해결)을 위해 군사적위협을 동반한 강경과 채찍, 회유와 기만의 수법을 다 써보았지만 누구도 조선이라는 호두알을 깨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음 정권에 정치적이탈건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칠레지부 인터넷홈페이지가 이렇게 전한것처럼 조선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있는 미국의 가공한 처지는 공정

행성의 진짜 초대국으로 전 세계의 야심있는 찬사를 받고있다.

한 세계여론의 조소와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이 나라를 압박해왔다. 조선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미국에 강경히 맞서 첨단급의 무장장비들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등장하였다. 힘으로 조선을 (정벌)하자니 저들의 멸망까지 각오해야 하고 그렇다고 손을 들고 약화하자니 (초대국)으로서의 체면이 손상되어야 하니 그야말로 조선문제는 미국으로서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안고있는 정치적수수께끼를 풀자면 조미력학구도를 구체적으로 투시해볼 필요

가 있다고 하면서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강대함》을 자랑하는 미국에 비해 볼 때 조선은 령토나 인구수에 있어서 미국과는 대비도 안되게 작은 나라이다. 허나 조선은 출중한 지략과 담력을 지니신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고있으며 자기 위업에 충실한 군대와 인민을 가지고있다. 수십년간 지속된 미국의 압박은 조선을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세계적인 군사강국, 초대국으로 무섭게 솟구쳐오른 조선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나우로즈》는 지난해 9월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성공소식이 세계를 진감시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행성의 《절대병기》, 《황제폭탄》으로 일컫는 수소탄과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힘의 사용으로는 조선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조선은 결코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다. 수수께끼의 옳바른 풀이법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며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단순한 풀이법을 찾지 못하여 참패만을 당하고있다. 미국은 좋은 싫든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평화적공존을 모색할 때만이 저들의 체면을 유지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 갖춘 조선은 세계적인 군사강국, 초대국으로 무섭게 솟구쳐올랐다. 세기를 이어오는 미국과의 핵대결전에서 조선은 이제는 가질것은 다 가지고 얻을것은 다 얻었다. 세계의 력학구도는 신흥초대

를 하지 않겠다고 도리머리질을 하는것이 아닌가. 그 모양이 우스워 입을 싸쥐었다. 그런데 능청스러운 곰등어가 꿈게 생긴 처녀손님을 보고는 물우로 뛰어올라 그의 불에 《뽀뽀》를 하는것이였다. 그 바람에 《와!—》하는 웃음소리가 관람석을 들끓다놓았다. ... 곰등어들의 기교를 보는것도 좋았지만 룡라물놀이장의 아찔한 미끄럼대에서 물갈기를 날리며 쏘살같이 내려쫓히는 상패함이란 무엇에도 비길수 없었다.

국 조선을 축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네팔인터넷잡지 《네팔 투데이》는 이렇게 전하였다. 세계는 미국의 핵선제타격에 위압되어 부정의 전횡에 감히 맞서지 못하고있다. 핵을 가진 대국들도 미국에 눌리워 한갓 장기쪽으로 전략되는것이 오늘 현실이다. 오직 조선만이 미국을 길들이며 정의를 수호해나가고있다. 미국은 저들이 《핵선제타격》단추를 누르기 전에 먼저 미본토를 초토화시킬 조선의 단호한 기상과 막강한 전쟁억제력에 전전공공하여 눈치만 보고있다. 이러한 일나통신은 조선은 주체의 핵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제사회가 목격한바이지만 미국은 조선을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해왔다. 조선인민은 자기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억제력을 갖추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핵보유는 원한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경탄하는것은 대국들의 전횡앞에서 타협을 모

르는 조선의 투철한 자주정신이다. 조선은 대국들의 위협과 공갈에 뒤걸음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 미국의 로골적인 핵선제공격 위협에 핵보유로 대담하였고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조선의 수소탄은 세계제패를 노리는 령강들의 핵우세와 패권을 일격에 무력화시킴으로써 부정의로 가득찬 핵무기의력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광범한 국제사회는 조선의 핵보유에 박수갈채를 보내고있다. 민주공고신문 《리누벨 옴세르바페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천 출 위 인 이 신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은 미중유의 힘과 기적으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떠올리고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수호해나가는 령도자를 결사옹위하여 총독란이 되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조선을 불패의 초대국으로 떠받드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결정구조는 그 어떤 핵탄으로도 깨지 못한다. 조선이야말로 세계의 초점을 모으는 진짜 초대국이다. 본사기자

내가 북을 다녀온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다. 그 대부분은 북 녀사화에 대한 호기심에 찬것들인데 듣다보면 어찌구미없는 것들도 적지 않다. 서방세계가 《독재체제》, 《노예적삶》 등 북을 얼마나 《악마화》했으면 사람들의 북에 대한 인식이 이 지경인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북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털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말해주곤 한다. 북을 방문하는 나날에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한 사실들에 대해서,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령도자의 사랑속에 기쁨과 량만에 넘쳐 살아가는 북녘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집이 있어요》 《저런 주력에서 사신다니 자식들이 간부인데지요?》 북에 일터서는 고급살림집들에서 《상류층》만 산다는 서방의 선전을 들어온 나였다. 그 물음에 너인은 《우리 자식들은 다 로동자들이랍니다. 말이는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둘째는 구역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하지요. 나라에선 려명거리의 새 집을 로동자가정인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무상으로 말이요.》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무상으로!

판이 러졌다. 그들과 즐겁게 한때를 보내고 대동강에 두둥실 떠있는듯한 룡라도에 둘러니 거기에 또 현대적인 유희오락시설들이 갖추어진 유원지가 꾸려져 있었다. 그중에서도 금시라도 물우로 솟구쳐오르는듯한 곰등어를 형상한 건물이 인상깊게 안겨왔다. 최근 북을 다녀온 사람들속에서 룡라곰등어관이 인기있더라는 말을 들어왔던지라 곰등어재주를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아 그안에 들어

를 하지 않겠다고 도리머리질을 하는것이 아닌가. 그 모양이 우스워 입을 싸쥐었다. 그런데 능청스러운 곰등어가 꿈게 생긴 처녀손님을 보고는 물우로 뛰어올라 그의 불에 《뽀뽀》를 하는것이였다. 그 바람에 《와!—》하는 웃음소리가 관람석을 들끓다놓았다. ... 곰등어들의 기교를 보는것도 좋았지만 룡라물놀이장의 아찔한 미끄럼대에서 물갈기를 날리며 쏘살같이 내려쫓히는 상패함이란 무엇에도 비길수 없었다.

위 노래를 부르며 희망찬 레일을 구상하는 광경은 불수록 흐뭇했다. 실로 북은 인민들의 기쁨 넘친 웃음소리로 가득차있었다. 과학자, 교육자들을 제일로 내세우는 제도하에서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연풍과학자휴양소들에서 삶을 누리고 휴양생활을 하는 과학자, 교육자들의 웃음소리 끝없고 온 나라에 일어난지는 체육열풍속에 일터와 마을 어디서나 량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니다. 역지로도, 강요로도 지어낼수 없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없다면야 어찌 명량유쾌한 웃음이 나올수 있랴. 북녘사회에서 높아가는 웃음소리, 그것은 기쁨과 행복이 나날이 커가는데서 오는것이였다. 더 좋아질 래일에 대한 낙관과 희망이 가져다주는 것이였다. 웃음은 장자의 여유이다. 북부조국에서는 미국과 유엔안보리사회의 제재가 가해지는 속에서도 웃음소리는 더욱 커가고있었다. 무엇을 믿기에 웃음에 넘쳐있는것인가.

웃음 많은 나라

지난해 여름 북을 찾았을 때였다. 한해전에 왔을 때보다도 플라보게 달라진 평양의 모습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한해사이 새로운 고층살림집구획들이 많이 들어섰을 뿐아니라 도처에 꾸려진 공원, 유원지들마다에서 더욱 활기에 넘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찾아볼수 있었다. 어느 일요일 우리 일행은 평양의 소문난 명승지인 모란봉에 올랐다. 산봉우리들의 모양이 금시 피어나는 모란꽃같다고 하여 모란봉이라 부른다는 이곳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붐비고있었다. 모란봉의 수려한 경치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오랜 력사유적인 울밀대로 오르는 데 흥취나는 출판물 빌려놓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반갑습니다.》, 《한바탕 같이 취봅시다.》 하며 저마다 손을 내밀었다. 그들에게 이끌려 회색바탕에 꽃무늬를 새긴 목수건을 두른 한 녀인과 춤을 추었는데 가볍고 맵시있는 춤동작이 여간 보통이 아니였다. 《젊어서 무용을 하였는가요?》 《무슨 무용을 했겠나요. 하두 즐겨 추다보니 이젠 출가락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지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니 말입니다.》 《자주 모란봉에 올라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답니다.》 《집이 가까운가요?》 《려명거리에서 살지요. 저기 보이는 고층아파트 39층에

많은것을 생각해하는 말이였다. 내가 살고있는 미국에만 해도 단칸짜리 집조차 마련할수 없어 세방살이와 로속으로 하루하루를 고통받으며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라에서 궁핍같은 새 집을 지어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니 어찌 노래춤이 절로 나오지 않으랴. 북녘사람들은 인심도 후했다. 우리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점심시간인데 별다른것이 없어도 식사나 같이하자며 잡아 끌었다. 좋은 기념이 될것같아 자리를 함께 하니 떡이며 지짐, 김밥, 물고기반찬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들었다. 한 로인이 찬그릇을 내밀며 내가 좋아한다고 머느리가 밥새 빛어 만든 만두요 하니까 저편 로인이 이긴 우리 딸이 싸준 오리고기볶음이고 또 이긴 자기네 인민반장이 만들어 보낸 순대라며 꺼내놓았다. 그러자 내곁에 앉았던 로인이 이긴 우리 내외가 전쟁로병이라고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이 들고온 잉어탕인데 여려분네는 눈요기만 하고 해외에서 온 손님만 맛보라고 하는 통에 웃음

서니 음악에 맞추어 곰등어들이 갖가지 재주를 펼쳐보이고있었다. 동시공치기, 공안고서서 가기, 물우에 서서 뒤로가기, 큰 공 날리기... 본능적으로 그물을 무서워하는 곰등어가 자그마한 꼴문으로 공을 물고들어가 쏘—하는 모습은 참으로 신기했다. 곰등어들의 재주가 펼쳐진 다음 《이번에는 곰등어가 마음에 드는 손님과 《뽀뽀》를 하겠습니까.》라는 조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조교사의 손길에 이끌려 남자손님이 곰등어가 있는 곳으로 가자 곰등어는 그가 싫는지 《뽀뽀》

《하하, 호호!》, 웃음속에 물놀이수조의 여기저기에서 튀겨오르는 물보라, 물에뛰어들기선수라도 된듯 아찔한 조약대우에서 멋진 동작으로 내리꽂히는 젊은이들, 은구슬 반짝이는 모래볼에서 해빛쪼이기를 하는 사람들, 모래터배구장에서 청년들이 《와와!》 함성을 지르며 승부를 다투는 열띤 모습들도 눈길을 끌었다. 유희장에서 급강하탕에 몸을 싣고 하늘높이 날아오르니 룡라도가 눈아래 보이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귀전을 채웠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흥에 겨

평범한 로동자들을 위해 국가가 호텔부럽지 않은 로동자합숙과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지어주니 《우리 세상은 근로하는 인민의 세상》이라며 또 얼마나 좋아하며 웃음짓는것인가.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도 있기 마련이다. 한쪽에는 웃는 얼굴이 있고 다른쪽에는 그늘진 얼굴이 있는것이 지구상의 현실이다. 하지만 북녘사회에는 어둠과 그늘이 없는것 같았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비껴있었다. 웃음은 절로 나오는것이 아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었다.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라 우리를 못살게 굴고 악한짓을 다해온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자의 존엄과 긍지가 강자의 웃음을 짓게 하고있었다.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강국으로 솟구쳐오를 그날이 멀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휘황한 래일에 대한 낙관에 넘쳐 더 크게 웃고있었다. 북녘사회에 넘쳐나는 웃음, 그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환하신 미소에 그대로 비껴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 로고를 바쳐가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환하신 미소가 떠날줄 모른다. 세상을 밝히는 해빛같은 웃음, 거기에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고 승리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있으며 인민에 대한 사랑이 넘쳐흐른다. 내가 만나본 북부조국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만복을 누리게 된다는것이다. 제일 피우기 힘든 꽃이 인민의 웃음꽃이라고 하였다. 인민을 내세우는 이 제도가 좋아서 웃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이 정치가 제일이라며 사람마다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고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북녘사람들이야말로 지구상에 돌도 없는 웃음의 나라에서 사는, 자본주의백만장자들도 부러워할 웃음부자들라고 생각되었다. 재미동포 흥경미

